

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2. 20.(금) 매일노동뉴스, “이주노동자 키·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‘04년부터 브로커 개입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도입 체계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.
- 고용허가제는 ①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, ②이주노동자는 입국 전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
 -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·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 알선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음.
- 향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필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집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,
 -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높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아 (044-202-7152)